

웅진코웨이, 온실가스 감축 추진

50여사에 인벤토리 구축 지원 ... 환경비용 연간 100억원 감축

웅진코웨이가 협력기업 50여사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한다.

웅진코웨이는 8월12일 협력기업들과 공동으로 서울대 R&D센터에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발대식과 배출량 감축 협약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웅진코웨이 환경위원장 김상헌 환경품질연구소장과 이기춘 환경기술연구소장, 협력기업 대표, 지식경제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웅진코웨이는 전문가 그룹과 함께 앞으로 2년간 협력기업 50사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도울 계획이다.

웅진코웨이는 협력기업들이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면 연간 100억원의 환경비용을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상헌 웅진코웨이 환경품질연구소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협력기업 지원과 더불어 에너지 신기술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8/13>